

이민자 좌절이 키운 극단주의 ‘유럽 심장’ 쏘다

브뤼셀 테러는 IS 보복공격

무슬림 이민자 빈부차 심각

벨기에에서만 500명 IS 가담

22일(현지시각) 발생한 벨기에 브뤼셀 동시다발 테러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보복공격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4명, 부상자는 2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유럽의 심장인 벨기에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망자 34명…용의자 추적=이번 테러는 IS) 폭탄테러 사망자가 34명으로 집계됐다. 벨기에 수사당국은 이번 브뤼셀 테러를 IS의 보복공격'으로 보고 파리 테러의 전당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의 추적에 나섰다.

벨기에 정부는 이날 브뤼셀 자택던 국제공항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세건의 폭탄 테러 공격으로 모두 3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현재까지 부상자는 230여 명이지만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이라크 정당당은 이번 공격이 압데슬람 체포에 따른 IS의 보복공격이라고 보고 있다.

벨기에 경찰은 공항 CCTV에 찍힌 용의자 3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테러리스트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또 압데슬람 체포 후 공개 수배한 파리 테러의 폭탄 제조범 나집 라크라위(24)와 당시 압데슬람 형제를 차로 태운준 모하메드 아브리니(30) 등 파리 테러의 전당들이 이번 브뤼셀 테러에도 연루됐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벨기에 테러 전진기지 전략=파리 테러 이후 총책임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를 비롯한 주범 9명 중 4명이 벨기에 출신인 것이 확인되면서 브뤼셀은 유럽의 테러 온상으로 급부상했다. 인구 10만 명 가량의 몰렌베이크는 50년 전부터 터키와 모로코 출신 이민자들이 정착한 이후 현재 인구의



브뤼셀의 밤 밝힌 추모 촛불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자폭 등 테러로 30여명이 사망하고 200명 넘게 다친 22일(현지시각) 밤 브뤼셀 부르스 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꽃다발을 바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30%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들 무슬림 이민자들은 벨기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했다. 인근 지역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몰렌베이크는 현지인들조차 접근을 꺼리는 슬럼처럼 변했고 실업률은 40%에 달했다. 좌절과 불만을 키운 몰렌베이크의 젊은 무슬림은 극단주의에 빠져 들었다.

이런 무슬림 젊은이들의 욕구를 흡수한 것이 바로 IS나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였다. 500명 가량의 벨기에 극적자가 시리아와 이라크로 들어가 IS 등에 합류했고, 이 가운데 100명가량이 다시 벨기에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돌아온 이들

이 아바우드와 압데슬람처럼 유럽을 겨냥한 테러를 조직하고 실행한 것이다.

◇“부패와 분열이 극단주의 키워”=정부의 통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인구와 정치구조가 복잡하다는 벨기에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테러 대처에 성공하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가령 브뤼셀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특별지역은 6개 경찰서로 치안을 맡고 있고, 특별지역에 속하는 19개 시의 시장이 각각 소속 정당과 언어가 달라 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의 심장 공격했다는 상징성=브뤼셀이 유럽연합(EU)의 본부가 위치한 EU의 수도라는 점도 테러범들이 브뤼셀

을 택하게 한 요인이다. 22일 폭탄 테러가 발생한 브뤼셀 도심의 말베이크 지하철역은 EU 본부가 위치한 곳이었다.

아직 EU 관계자가 사상자에 포함됐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러범 입장에서는 EU 본부 인근에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유럽의 심장을 공격했다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벨기에에는 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3대 국가의 가운데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도 유럽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또다른 테러 장소가 브뤼셀 국제공항이라는 점도 이번 테러가 벨기에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쿠바 방문 오바마 “냉전 끝내려 왔다”

쿠바를 국빈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주 대륙에 있는 냉전 시대의 마지막 잔재를 파묻기 위해 쿠바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순방 사흘째인 이날 알리시아 알론소 국립극장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나는 미국과 쿠바가 분리되고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대립하는 시대를 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설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미구엘 디아스 카넬 수석 부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쿠바 전역에 생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국민에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쿠바 국민은 자기 생각을 가슴에만 두지 말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쿠바 국민이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인들이 미국에 간절히 바라는 금수조치의 해제, 쿠바와 미국의 동질감 등을 언급해 박수갈채를 받았기도 했다.

오바마는 대중 연설 이후 쿠바 정부의 반대에도, 아바나의 미 대사관에서 쿠바의 인권운동가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애리조나 압승... “대선 보이네”



힐러리



트럼프

힐러리·트럼프, 최대 승부처 애리조나서 큰 표차 1위

미국 애리조나 주(州)에서 22일(현지시각) 실시된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승했다.

이날 오후 11시50분 현재 71%가 개표된 민주당의 경우 클린턴 전 장관이 60.5%의 득표율로 36.9%에 그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를 확정 지었다.

또 61%가 개표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46.0%의 득표율을 기록해 22.0%에 그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브뤼셀로 향하는 항공편과 기차편을 취소하고 각국 공항과 주요 교통시설 등에 대한 경계 강화에 나섰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도 “벨기에와 유럽 전체는 우리 앞에 마주 선 테러 위협에 저항해야 한다”며 대테러 연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를 필두로 당 주류 진영이 자신의 후보 지명을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거든 승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공화당 애리조나는 승자독식 제도가 적용되는 곳으로, 트럼프는 이 지역 대의원 58명을 독식하면서 크루즈의 원과의 대의원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애리조나 승리 덕분에 트럼프의 누적 대의원은 7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전체 대의원 2472명의 과반인 1237명)의 59.9%다.

클린턴 전 장관 역시 샌더스 의원의과의 대의원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게 됐다. 애리조나 경선 결과를 반영한 누적 대의원 숫자는 클린턴 전 장관 1691명, 샌더스 의원은 89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체 대의원 4764명 가운데 과반인 2383명을 확보해야 후보로 지명되는 데 클린턴 전 장관의 누적 대의원은 매

직 넘버의 70.3%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유럽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 테러 함께 막을 것”

유럽연합 정상들 공동성명

벨기에 브뤼셀에서 22일(현지시각) 발생한 테러는 유럽 대륙을 향한 테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구 수장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이날 테러는 “개방된 민주주의 사

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1월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파리 연쇄 테러를 당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뤼셀 공격을 통해 유럽 전체가 당했다”고 규정했다.

독일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이번 테러의 목표들은 공항과 유럽연합

(EU) 본부 인근의 지하철역”이라며 “이는 단지 벨기에가 아니라 유럽의 이동의 자유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한 뒤 “이들 테러가 벨기에에서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머런 총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가 누구인지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공격했지만 그들이 결코 승리하도록 놔둬선 안된다. 모두 함께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브뤼셀로 향하는 항공편과 기차편을 취소하고 각국 공항과 주요 교통시설 등에 대한 경계 강화에 나섰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도 “벨기에와 유럽 전체는 우리 앞에 마주 선 테러 위협에 저항해야 한다”며 대테러 연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경매로 취득 (7억 3천만원, 4명 입찰)
- 용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